

## 한국문학의 영어권에 있어서의 수용 및 연구 현황 - 미국을 중심으로\*

권석우  
(서울시립대학교)

### I. 서론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한국문학 연구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단행본 연구서, 박사학위 논문, 정기간행물(학술지 또는 잡지)이나 편집된 책에 게재된 한국문학과 관련된 논문, 정기-비정기 간행물에 게재된 서평이나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연구서지 목록작성을 시도하였다. 영어권에 있어서 목록 작성은 『호프만 하버드 한국학 서지목록The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 『하와이 한국학 연구 데이터베이스Hawaii Korean Studies Bibliography』, 그리고 『미국 현대어문학회 국제 서지목록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을 주로 참조하였고, 필자의 현지답사로 부분적으로 수정을 보았다. 목록을 작성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현지에서 영어로 써진 것을 주로 하였으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쓴 것과, 한국(문)학의 영어권의 대표적인 국내 저널인 『코리아저널Korea Journal』 등을 위시한 한국에서 출판되는 저작물에 기고한 영

---

【Key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literary reception, bibliography of Harvard Korean studies, a bibliography of Hawaii Korean studies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2년 기초학문 육성사업(국내외 지역분야연구: KRF-2003-072-AM3002)의 2차년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고 논문은 『한국문학의 해외수용과 연구현황』의 일부로 출간된다. 기초자료 정리와 그래프 작성은 도와준 연구 보조원 이영선, 심봉주님, 그리고 1차년도 연구를 주도하신 봉준수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어권 외국인들의 저작 또한 포함하였다. 영어권은 다른 몇몇 언어권과는 달리 분석할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그 자료가 방대하다는 측면에서, 몽고인이나 일본인 등의 비영어권 학자가 영어권 저널에 게재한 저작은 제외하였으나, 영어권 국적을 가진 학자로 추정되는 분이 다른 언어권 사용국가에서 영어로 발행되는 저작에 발표한 글들은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적에 대한 확실한 검증은 추후의 작업으로 미루었다.

이러한 불완전한 원칙과 미흡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서 발행된 한국문학 연구 단행본은 33권, 학위논문은 석사논문 1편을 포함하여 17편, 개별논문은 200편, 서평 및 짧은 글은 84편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2004년 2월까지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연구된 문학 장르 및 작가, 출판연도, 수록처, 출판지 등으로 통계를 내어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현황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쉐필드 대학 University of Sheffield의 프렌더가스트 박사 Dr. David Prendergast가 주관하여 시도하는 영국 한국학회 BAKS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자료 수집 및 구축 단계이어서 연구서지 목록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 II. 미국 및 영어권의 한국문학 수용 양상

### 1. 한국문학 번역서의 발행 부수 및 출판정책

영어권에 있어서 번역서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묻는 설문에 답신해 온 출판사는 30여개의 출판사 중, 버클리 대학 출판사와, Lynne Rienner 출판사, 콜롬비아 대학 출판사였고, 코넬이나 시카고 대학 출판사는 답신을 해왔지만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를 알려주지 않았다. 미시간 대학, 뉴욕 소재 옥스퍼드 대학, 홍콩 소재 차이니즈 대학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그리고 그린우드 출판사 등은 어떠한 한국 관련 책을 출판하지 않았다는 답신을 해

왔다. 위에서 언급한 3개의 출판사에서는 하드바운드는 250권에서 300권을, 페이퍼백은 1000권에서 2000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하드바운드를 1000권에서 2000권 펴내는 미국 시장의 일반적 경향과 상치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문학을 장서로 받아들이는 대학 도서관이나 연구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음을 예증한다.

## 2. 연구서 출판 현황분석

한 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가 단행본이라면 영어권에서 출판된 한국문학 관련 연구서는 러시아어권의 44권에도 못 미치는 33권이이 미흡한 수준이다. 영어권의 방대한 한국학 출판도서에 비하여 (호프만에 의하면 1997년까지 한국학 관련 단행도서는 편집도서를 포함하여 15,336권), 한국문학 관련 도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영어권에서의 한국학 연구가 주로 정치, 경제나 역사, 문화인류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한 지표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학을 연구하는 각 유수한 대학의 장서로는 한국문학 작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문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업을 개설하는 대학이 아직도 몇몇에 불과해,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영어권의 연구서 출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실용주의적 학문을 위주로 하는 영어권의 학문경향을 단적으로 반증한다 할 수 있겠다.

가장 많은 연구서를 집필 또는 편집한 학자는 피터 리Peter H. Lee로 10편

을 내었으며, 테레사 현

Theresa Hyun이 2편, 제임스

호이트James Hoyt 가 1편,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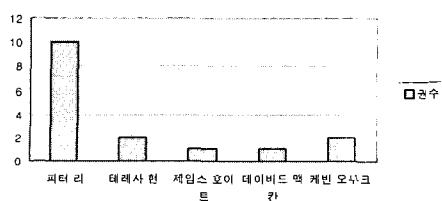
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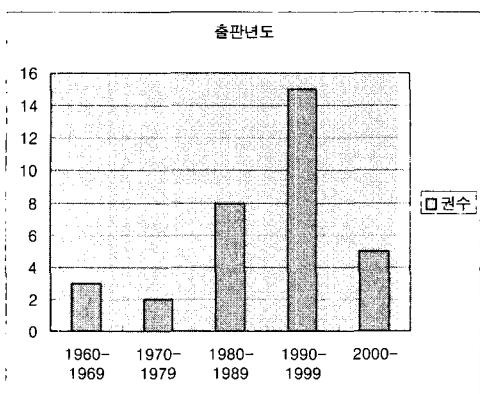
칸David R. McCann 교수가 1

편, 또 한국에 거주하는 오루

크 교수Kevin O'Rourke는 모

1.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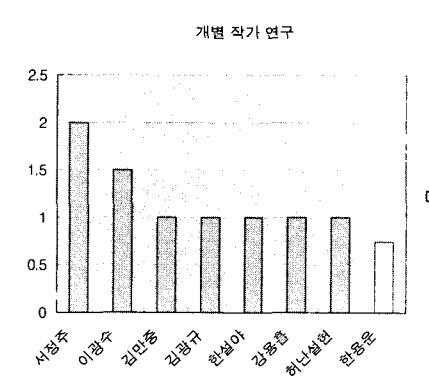


노그래프를 합하면 2편 등이다. 연구영역별로 보면 현대소설(5), 현대시(5), 한국문학일반(4), 한국문학사(3), 한국문학서지(3) 등이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갑오경장을 기준으로 고전, 현대 문학을 나눈다면 고대분야는 9편이고, 현대분야는 15편, 그리고 문학사 또는

문명사 일반에 관한 저작들이 9편으로 도합 33편이다. 연구서가 출판된 시기를 보면 1990년대가 15편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980년대가 8편, 2000년대가 5편, 1960년대가 3편, 1970년대가 2편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연구서가 가장 많이 출판되었는데, 이 시기들에 있어서 문학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된 시기와도 일치하여, 영어권에 있어서의 한국문학, 또는 한국학의 전성기가 1980-1990년대임을 입증한다. 한국문예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금고, 그리고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 문화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사업과 더불어 한국학 기금의 국외 연구지원이 이루한 조그마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아래 1차년도 봉준수권석우의 번역 출판연도별 분석 참조).

시기 구분	1910 이전	1910- 1919	1920- 1929	1930- 1939	1940- 1949	1950- 1959	1960- 1969	1970- 1979	1980- 1989	1990- 1999	2000- 현재	미상/ 미확인	합계
전체	1	2	2	2	2	8	20	60	123	121	54	4	399
해외	1	2	2	2	0	4	6	13	48	71	21	0	170
국내	0	0	0	0	2	4	14	47	52	43	23	4	189
해외 및 국내	0	0	0	0	0	0	0	0	23	7	10	0	40

출판사별로는 역시 한국학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는 하와이 대학,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아리조나 대학 출판사 등을 위시하여 여러 대학 출판사가 한국문학 연구서를 간행 하여, 한국문학 연구서를 1-2 개의 출판사가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타 언어권과는 상이한 점을 보였다. 즉, 영어권에 있어서는 한국문학에 관한 출판

이 타 언어권과는 달리 전략적으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연구서는 대개가 대학 출판사들 경유한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필자가 접촉해 본 영어권의 대개의 출판사는, 물론 한국학 전반에 걸쳐 연구총서를 내고 있는 뉴욕주립대나 코넬 대학 등의 몇몇 출판사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문학에 관해 특별한 출판원칙이 없음을 답신해왔다. 한국문학에 관한 개별 작가 연구로는 서정주가 2편, 이광수가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김만중, 김광규, 한설야, 강용흘, 허난설희 등이 1편이었으며, 한용운이 0.75편, 김소월, 심훈, 정지용 등도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한설야는 다른 언어권과 마찬가지로 영어권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었고, 특별히 웨인 주립대의 영문과 교수인 유병천의 한용운과 이광수에 대한 연구 또한 돋보인다 할 수 있겠다. 영어권은 학술대회의 많은 논문이 논문집의 형태로 엮어지거나 출판되었으나 통계에서는 제외되었고, 문학선집(*Anthology*)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구서가 아니지만, 그것이 시대별, 작가별 소개와 간단한 문학적 개관을 포함된다는 점에서 통계에 반영하였으나, 문학과 전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편집서는 제외되었다. 2003년에 콜롬비아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콜롬비아 현대동아시아문학 연구/The Columbia Companion to Modern East Asian Literature』는 한국문학에 관한 단행본 연구서에 필적할 만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 총 800여 면 수 중 한국문학에 관한 논의가 124면에 달하여, 이 편집된 책을 단행본

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단행본 편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 3. 학위논문 분석

한국학 전반에 걸친 영어권 학위논문은 호프만 인덱스에 의하면 1997년까지의 모든 언어권 집계 총 7011편 중 5968편이다. 그러나 영어권에 있어서 한국문학에 관한 학위논문이 차지하고 있는 수량은 앞서도 밝혔지만 17편으로 러시아어권 22편에 비하면 조금 미미한 편이다. 이렇게 한국문학 박사논문이 적은 이유로는 첫째, 영어권, 특히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에서 한국문학에 관한 수요가 그리 많지 않음을 반영하고, 둘째로는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 나라들의 실용주의적 학문 경향을 들 수 있겠다. 즉, 한국이나, 한국의 정치경제, 한국문화 등에 대한 수업이 많이 개설되고, 그 방면들에 관한 교수들이 속속 총원되는 반면, 한국문학에 관한 교수충원이나 수업개설에 대해서는 대학당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전공하려는 지원자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을 위시한 유럽의 순수 학문 경향과는 차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학에서 한국문학 수업이 개설되고 있는 곳으로는, 수십여 개의 한국학 관련 대학들 중 하와이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미시건 대학, 남가주 대학, 코넬 대학, 아리조나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등이다. 한국 교포의 후원에 힘입어 한국학 전임 교수직을 2명으로 갖고 있었던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의 한국학은, 이 학교의 한국문학 전담 교수였던 최익환 교수가 조기 은퇴하고, 한국학이 비교문학과에서 동아시아학으로 축소 편제되어 한국학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한국종교에 관한 연구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서정주를 많이 번역하고 연구하는 맥칸 교수의 분투에 힘입어 한국문학 관련 수업과 박사학위 논문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고,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연전에 임명된 한국문학 교수가 사퇴함으로써 마땅히 그 후임을 찾지 못하고, 주로 한국의 정치, 문화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버클리는 스칼라피노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현대사, 한국전쟁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고, 시카고는 한문학을 위시한 한국 고전에 관한 연구가 심도있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리조나 대학이 한국 작가 (강은교, 황석영) 초청의 밤 행사를 하였으며, 조지워싱턴 대학이 한무숙 콜로퀴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남가주 대학과 하와이 대학은 교수들 대부분이 한국계라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한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한국계 한국학 교수의 집중이 일어나는 반면,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로의 한국계 한국학 관련 교수의 진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대산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한국작가 소개 사업을 2003년에 유치한 미시건 대학은 황지우와 황석영을 초청작가로 선별하였으며, 콜롬비아 대학은 2004년 최인훈에 관한 워크샵을 하였고, 또 박경리와 더불어 강력한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은 하버드와 워싱턴의 폴저 인스티튜트 Folger Institute 등의 강연회를 통하여 한국의 구비문학 전통과 불교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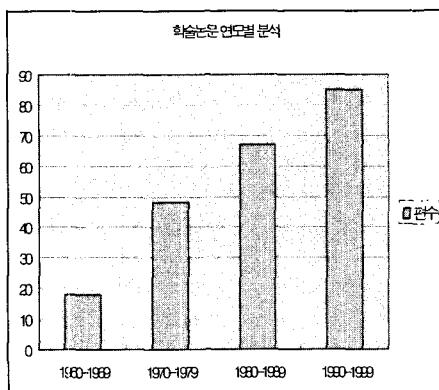
또 하나 언급해야 할 특이한 사실로는 미국의 한국문학 수업이 대개 현대 한국문학 수업에 집중되는 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문학 개설은 고전을 중시하는 유장한 영국적인 전통을 반영이나 하듯이 한문학을 위시하여 한국고전을 위주로 개설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옥스퍼드 대학의 한국문학 수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재로는 『삼국지』, 『동이전』, 광개토왕릉비문, 『삼국사기』, 『삼국유사』, 『악학궤범』, 『약장가사』, 『동문선』, 『훈민정음해제』, 『월인석보』, 조선시대의 가사, 『홍길동전』, 『연암집』, 『삼일 독립선언문』 등으로 미국의 버클리나 코넬, 콜롬비아, 하버드 등과의 교재와는 상이하다 하겠다. 참고로 한국계 마이클 신 Michael D. Shin 교수가 있는 코넬이 다루고 있는 한국문학 작가를 소개하면 주로 현대문학으로 이태준, 이청준, 이광수, 김동인, 이기영, 신경숙, 최서해 등이다. 옥스포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The Korea Foundation에서 후원하는 해외 한국학 교수 사업을 유치하여 활성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 본다.

1962년에 시애틀 소재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마틴 Albert Martin이 『한국과 일본의 노동문학연구 A Survey of the Proletarian Literary Movement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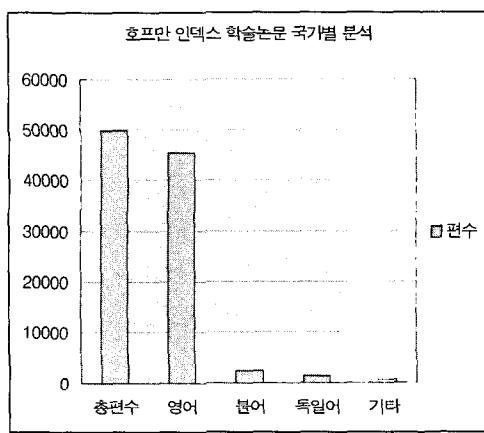
*and Korea』로 석사 학위논문을, 그리고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호이트 교수의 『한국문학·향토문학의 기원, 1443-1592 Korean Literature: The Rise of the Vernacular 1443-1592』가 통과된 이후의 한국문학 학위논문 집필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한다. 학위논문이 작성된 시기는 1990년대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위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의 시기는 현대문학이 8편, 고전문학이 8편 등으로 학위논문에서는 현대문학 선호 현상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현대소설에 관한 연구가 3편으로 타 장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 부문만으로도 총 5편이 출판되어 한국 현대문학의 요람으로 하버드가 UCLA나 하와이와 함께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학술논문 분석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서 부분적으로 집계된 한국문학과 관련된 학술논문은 총 200편이다. 호프만 인덱스는 총 49,744편 중 영어권 한국학 관련 논문을 45,409편으로 집계하는 바, 역시 그 중에 한국문학이 총 200편이라는 것은 영어권 내에서의 실용주의적 학문경향을 드러내 주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폭발적인 한국학 관련 학술논문은 물론 한국문학에 대한 집계에서도 나타나는 바,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80년대는 55편, 1990년대는 79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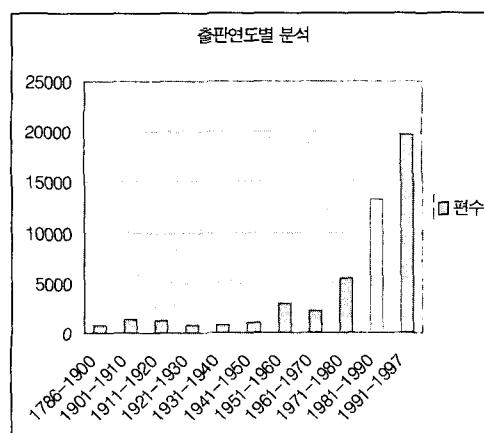


1960년대 16편, 1970년대 39편과 대조된다. 영어권에 있어서 최초의 논문은 1898년 『한국의 보고 The Korean Repository』에 게재된 작자미상의 「한국문학 속의 산스크리트어」로 확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1908년 허버트Homer B. Herbert가 『한국 선교The Korean Mission Field』에 게재한 「한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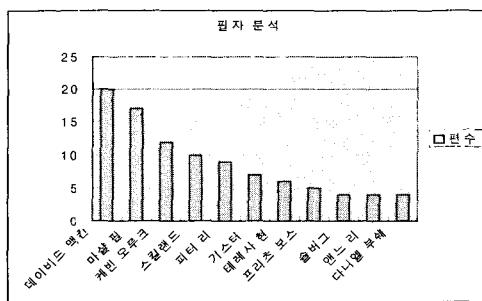
학」, 1917년 『한국 잡지The Korea Magazine』에 게재된 작자 미상의 「한국문학」, 그리고 1918년 게일James S. Gale이 『공개법정Open Court』에 발표한 24쪽 분량의 「한국문학」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영어권에 있어서 1889년 호러스 앤런에 의해 미국 퍼트남 출판사Putnam's Son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한국 민담집Korean Tales』과 1911년과 1925년에 그리피스 W. E. Griffis와 와그너Wagner가 각각 구비문학을 영역한 이후, 한국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번역서인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The Cloud Dream of Nine』(1922)의 번역자로도 유명한 캐나다 북미 장로파 선교사 제임스 게일(1863-1937)의 「한국문학」은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뭇 그 내용이 궁금하다. 1920년대로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 관련 논문이 한 편도 없다는 사실은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기이한 현상을 드러낸다. 물론 타 문화권에 있어서도 1960년대 이전에 한국 문학과 관련된 그렇다 할 논문이나 단행본이 출간된 족적은 희미할 뿐이다. 호프만 인덱스는 집계된 한국학 관련 논문의 수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 바 있다.



옆의 통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1920년대와 1930년대는 단행본, 학위논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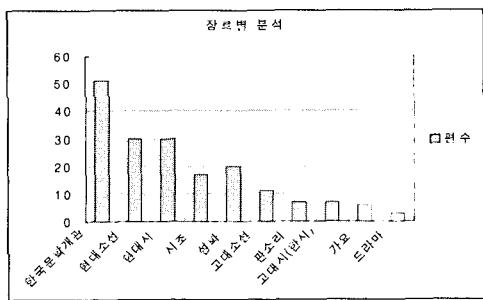
더불어 학술논문 또한 그 발표 수가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로는 한국이 그 당시 일제 시대의 강점기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보면 쉬이 짐작이 간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또한 일제 시대와 한국전 이후의 혼란기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통계 수치이다. 요컨대 1970년대의 준비기를 거쳐 1980년대와 1990년대 이르러서야 한국학, 또는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과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된다.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2003년에 맞은 미국에만 국한시켜 이야기하여 본다면, 한국인의 미국 사회로의 진출이 초창 기에는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멜리나, 미용실, 의류사업을 거쳐, 이민 2세대 3세대에 이르러 MBA나 치과 또는 병원 의사직을 거쳐 변호사직, 그리고 지난간 10여 년 사이의 괄목한 만한 현상인 이민 3, 4 세대의 교수직 진출, 특히 문학연구 직종으로의 진출과 일치한다 하겠다. 즉, 한국학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문학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자의 상황이다.



연구자별 집계를 보면 맥칸 교수가 17편, 러트 리차즈 Rutt Richards가 14편, 마샬 필 Marshall R. Pihl이 15편, 케빈 오루크가 8편, 스킬랜드 W. E. Skillend가 6편, 피터 리가 8편, 키스터 신부가 5편,

테레사 현이 5편, 보스 Fritz Vos가 4편, 솔버그 S. E. Solberg와 이광수의 손녀인 앤느 리 Anne Sung-hi Lee가 각각 3편, 부체 Daniel Bouchez가 2편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체는 프랑스어로도 한국문학에 관한 논문과 단행본을 각각 1편과 2편씩을 내었으나 영어로도 번역과 논문저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고전이 86편, 현대가 93편으로 집계되어 영어권에서는 고대, 현대가 단행본이나 학위논문에서처럼 거의 비슷하게 연구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번역서가 현대문학, 특히 현대시나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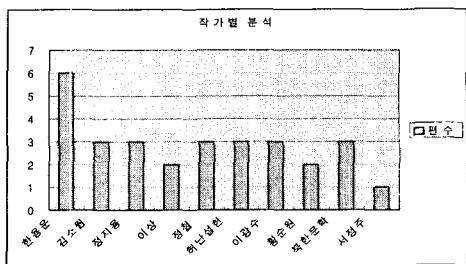
대소설에 집중되는 현상과는 상이한 양상을 떤다 할 수 있겠다. 장르별로는 한국문학 전반에 걸친 개괄적이고 개론적인 글들과 번역에 대한 짧은 평을 포함하는 글들이 47편으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각각 28편, 시조 13, 설화 20, 고대소설 10, 판소리 6, 한시를 포함하는 고대시 7, 가요 6, 드라마 3편으로 분류되었다. 번역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현대소설과 현대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연구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번역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개별 작가에 관한 연구로는 파악된 바에 의하면, 한용운이 6편, 김소월 2,

#### 1) 참고로 봉준수의 번역의 장르별 분석과 비교해 보자.

	장르 구분	소계	국내	국내/해외	해외
고전 95종	고전, 시집	3	3	0	1
	고전, 시선집	26	12	1	13
	고전, 소설	22	21	0	1
	고전, 소설집	3	3	0	0
	고전, 희곡	0	0	0	0
	고전, 희곡집	1	0	0	1
	고전, 장르혼합	4	1	0	3
	고전, 기타 (설화, 수필, 일기, 회고록)	36	13	5	18
현대 284종	현대, 시집	5	2	0	3
	현대, 시선집	128	64	12	52
	현대, 소설(장편)	59	22	8	29
	현대, 소설집(중편, 단편)	71	23	13	35
	현대, 희곡	1	1	0	0
	현대, 희곡집	3	1	1	1
	현대, 장르혼합	14	10	0	4
고전/현대 20종	현대, 기타(자서전, 수필 등)	3	2	0	1
	고전/현대, 시선집	16	11	0	5
	고전/현대, 장르혼합	4	0	0	4
합계 399종		399	189	40	170



정지용 2, 이상 2, 정철 2, 허난 설현 3, 이광수 2, 황순원 2, 북 한문학에 대하여 3편 등으로 확 인되었다. 서정주에 관한 글이 단 한편으로 올라온 것은 뭔가 의심쩍은 면이 많은데, 아마도

서정주의 시가 외국인들이 연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한용운 등을 위시하는 불교문학에 대한 연구도 끊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서양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이다. 논문 수록처로는 서울 유네스코에서 출판되는 『코리아 저널』이 45 개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한국문화 Korean Culture』가 10편, 『한국학 리뷰 The Review of Korean Studies』에 5편, 『담강 Tamkang Review』에 3편이 실려 있다.

### 5. 신문, 잡지 등의 언론에 실린 서평 또는 기사

영어권에 있어서는 편집서나, 신문, 잡지 등에 실린 서평이나 짧은 글을 세분하여 보면, 짧은 서평적 글이 학술 잡지에 실린 수는 84편이며 상업적 잡지 또는 신문 지면에서는 23편이 도출되었으나, 조사가 안 된 신문이나 잡지의 글들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 수가 방대하여 통계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영어권은 다른 단행본이나, 학술논문, 그리고 학술논문에 대한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영어권의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별히 신문에 실린 서평은 추적하기도 어려웠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술적이지도 않기도 하여 필자가 참고한 세 개의 인덱스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태평양 Pacific Affairs』과 『오늘의 문학 World Literature Today』 등에 실린 서평에는 박완서의 분단소설을 다룬 기사가 빈번하게, 그리고 학술적 잡지에 실린 서평으로는 황석영 (3편), 이광수 (2), 한설야 (2), 월북작가 (2), 박완서, 박경리, 한용운 등이 한편이고, 학위논문이나

단행본, 학술논문에서는 언급을 잘 찾아볼 수 없는 황동규, 조세희, 양귀자, 윤흥길, 김수영, 신경림, 천상병, 최인훈, 정지용, 이청준 등도 각 1편씩을 차지하여, 한국문학에 대한 소개가 동시대의 작가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콜롬비아 현대동아시아문학 연구』에 실린 2-3 쪽의 서평 분량의 글들은 한국문학에 관한 단행본 연구서에 필적할 만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 언급을 요한다. 800여 면 수에 달하는 이 책의 총 편집인인 모스토우 Joshua S. Mostow 교수의 총론, 「동아시아의 현대문학: 개론」에는 그러나 한국문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아직도 몇몇 동아시아 문학 전공 학자들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편향 현상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 한국문학 연구 담당 편집인은 풀튼 Bruce Fulton 교수인데, 그는 “현대 한국문학은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의 융합으로 보아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다”(619)고 주장하며, 현대한국문학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즉 현대한국문학은 조선조(1592-1910)의 구비문학전통과 한글이나 한자로 기록된 엄청난 양의 소설적 서사의 지속이라는 주장과, 현대문학을 그 이전의 문학과는 완전한 단절로 보아 현대한국문학을 20세기 초에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된 서양을 위시한 외래 문학의 영향으로 보는 주장들과의 절충을 취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현대한국문학을 전환기, 초창기 현대, 현대, 최근문학 등으로 세별한다.

현대문학의 시초를 육당 최남선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1908) 또는 이인직의 신소설 『혈의 누』(1906) 또는 이광수의 『무정』(1917) 등으로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을 소개하는 풀튼 교수는, 그러나 현대문학의 시점을 『무정』으로 보는 이 책의 총 편집자 모스토우 교수의 의견을 확실히 따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풀튼 교수에 의하면 전환기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이인직, 초창기 현대문학으로는 김동인, 현진건, 이광수, 염상섭, 채만식, 김유정, 이상, 김소월, 서정주, 1945년 이후의 현대문학 또는 동시대문학으로는 소설가로서는 손창섭, 김수영, 김승옥, 최인호, 최인훈, 이청준, 조세희, 황석영, 이문열 등을, 또 시인으로는 서정주, 신경림, 김지하, 고은 등을, 극작가로서는 김유진, 유치진, 오태석을 언급한다.

최근 현대문학의 특징으로는 특별히 박완서, 오정희 등을 위시한 여류작가의 문단 내로의 유입과 이문열, 황석영, 고은 등의 지속적인 문필 활동, 조정래의 팔목할만한 활동을 들고 있다. 독어권이나 불어권의 경우처럼 서정주, 이상, 이문열 등을 위시하는 ‘상징주의적’ 계열의 작가에 대한 호의가 엿보이며, 고은, 황석영, 조정래 등을 필두로 하는 참여 작가에 대한 관심도 유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조정래의 『태백산맥』과 더불어 한국 현대문학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한 짧막한 언급은 아쉬움을 남긴다. 영어권에서의 『토지』의 번역은 한국 UNESCO의 지원에 의해 출간이 이루어졌는데, 『토지』 전작을 단 1권으로 편집하여 페이지 657 쪽으로 발행하였다. 후에 상업적인 출판사인 케간 폴Kegan Paul이 하드바운드로 617쪽으로 다시 발행하여 도서관에 보급하기 시작하였지만, 전작이 번역되지 않아 『토지』의 방대한 스케일과 구한말의 한국사와 민중의 아픔과 투쟁을 제대로 번역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장편 대하소설을 읽지 않는 것이 작금의 독서 관행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 7권도 잘 읽혀지지는 않지만, 일본어를 포함한 세계 각 국어로 번역되어 프랑스 문학의 위대함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그 책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프랑스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토지』 같은 책은 외국인이 쉽사리 번역할 수 없는 책이라 국내외 학자가 대거 협력하여 참가하는 문학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리게 한다.

### III. 한국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

미국에서의 한국문학의 전개과정은 한국학 여러 분야의 발전과정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 여러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한국학 발전 시기의 총괄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화여대의 한국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

문의 집필자인 이혜경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한국학의 여명기 (16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까지); 2. 한국학의 발아기 (19세기 중엽부터 1910년 이전까지); 3. 한국학의 잠정기 (1910년부터 1945년 이전까지); 4. 한국학의 성장기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구미에서의 한국학 분류를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와 대비해 보자. 앤드류 남Andrew C. Nam 교수는 미국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940년 이전의 개척단계; 2. 1945년 이후부터의 파종단계; 3. 1955년-1965년의 발아단계; 4. 1965년 이후의 개화단계. 이혜경이 분류하는 한국학의 여명, 발아, 잠정기를 건너 뛰어 성장기만을 세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러시아에서의 한국학 시기 분류와 대비해 보는 것은 비교문화적인 차원에서 유익하다. 러시아의 한국학에 대하여 김현택은 기초정보 축적시기 (1917 혁명이전), 준비기 (공산혁명부터 1950년대 말까지), 체계화기 (1960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탐색기 (1980년 이후) 등으로, 또 유학수는 정보취합 시기 (17세기 후반-1850), 맹아 및 발생기 (1854-1917.10), 학문적 접근기 (1917-1939), 도약기 (1945-1960년대 중반), 전성기 (1960년대 말-1979), 다변화기 (1980-1990), 르네상스기 (1991-현재)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학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엄순천은 한국문학의 시기구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 소개기: 1900년 이전; 2. 준비기: 19세기 말-1916; 3. 침체기: 1917-1944; 4. 성장기 1945-1959; 5. 전성기: 1960-1979; 6. 답보기: 1980-1989; 7. 재도약기: 1990-현재.

이러한 타 언어권의 연구를 참조하면서 불완전하고 따라서 계속 보완 작업을 필요로 하는 한국문학에 관한 연구서지의 출판연도별 분석과 앞서 언급한 번역서지의 출판연도별 분석, 그리고 호프만 인덱스를 토대로 하여 영어권의 시기 구별을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2) 한국문학 시기 구분을 위하여 이혜경, 이성무의 1차적인 자료와 그에 대한 연구를 주로 참조하였다.

### 1. 소개기: 1786-1900

1653년 『하멜 표류기』가 출판된 이후, 연희전문의 설립자 언더우드의 『한영문법*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1889, 1914), 선교사 게일의 『한영대사전*Korean English Dictionary*』(1897), 그리고 프랑스 외교관인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조선서지*Bibliography Coréenne*』 등의 출판은, 비록 이 시기에 문학작품의 번역으로 작자미상의 페트남 출판사의 『한국민담집』(1889)이, 그리고 연구 논문으로 역시 작자미상의 「한국문학 속의 산스크리트어」(1898) 등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어가 연구되고 사전이 출간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기초적인 토양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 발아기: 1901-1922

구비문학 번역집인 그리피스의 『한국민담집』(1911), 그리고 와그너의 『한국민담집』(1915)이 간행되었고,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의 효시로 선교사 게일의 『구운몽』이 런던에서 1922년 출판되었다. 학술논문으로는 1908년 허버트의 「한국문학」이, 1917년 작자미상의 「한국문학」, 그리고 1918년 게일의 24쪽 분량의 「한국문학」이 있다. 시기를 1922년으로 잡는 것은 그만큼 『구운몽』의 출판이 한국문학 번역 및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 서이다.

### 3. 침체기: 1923-1960

이 시기는 한국문학 번역도, 또 그것에 대한 연구도 지극히 저조한 양상을 띤다. 러시아어권과 비슷한 양상이다. 한국문학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일제의 체제아래 신음하던 시기인지라 군데르트W. Gundert가 쓴 『일본종교사』

(1935)에서는 한국종교가 일본종교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기도 했으며, 라우텐자흐Herman Lautensach의 『한국』(1946)에서는 한국의 지명이 일본어로 표시되기도 하였다. 지정학적 중요성에 따라 한국학이 갑자기 활발해진 1950년대에도 한국문학에 대한 번역과 연구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이 여러 도표들에서도 보인다.

#### 4. 개화기: 1961-1980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에는 구미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학 과목이 개설되고, 번역 및 연구가 미미한 수준으로나마 시도된 세대이기도 하다. 영어권 최초의 학위논문이 비록 석사학위이긴 하지만 시애틀 소재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출판되었고, 박사논문만 해도 4편이 나왔으나, 단행본 연구서는 제자리를 담보하였다. 1952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된 이후, 1972년은 하와이 대학의 한국 교민들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한국학 연구 센터(The Center for Korean Studies)의 개원을 보는 것으로 민족해야 했다.

#### 5. 도약 및 성장기: 1981-현재

이 시기는 번역 면에서나 연구 면에서도, 그리고 미국 내의 한국학 연구기관의 설립과 대학 내의 프로그램 설치 면에서도 공히 한국학, 또는 한국문학의 성장기라 칭해도 손색이 없다. 다만 번역에 관해서는 1990년대 중반에만 한정시켜 본다면 프랑스어권 또는 독일어권에 비하면 저조한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미국 내의 한국문학 학자들이 곧이 번역본을 통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연구하는 풍토가 정착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확인된 바로는 1983년에는 조지타운 대학과 조지 워싱턴 대학, 스토니 부룩 소재 뉴욕주립 대학이, 1985년에는 시카고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1987년에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이, 1990년에는 산

디에고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이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이외에도 남가주 대학, 콜롬비아 대학, 버클리 대학, 애리조나 대학 등에서 한국학은 굉장한 융성을 보이고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한국학, 또는 한국문학의 성장을 선도하였는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1년부터 한국에서 출판되는 영어권 잡지인 『코리아 저널』과 1969년부터 프랑스어 문화권의 『한국 리뷰 *Revue de Corée*』를 출판 후 원하기 시작한다. 한국 정부 또한 70년대에 한국산학협동재단The Korea Traders Scholarship Foundation과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을, 197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을 설립하여 국내 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주도하기 시도하였으며, 1980년대에 한국학 술진흥재단The Korea Research Foundation을 설립, 해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 번역, 연구 사업을 총괄 하는듯한 양상을 띤다. 한국문학번역금고와 한국문학 번역원, 그리고 대산 문화재단의 후원 또한 이 시기의 한국학 번역 및 연구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문)학에 대한 지원은 주로 몇몇 유수 기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띠어(이성무 189-91), 중국학이나 일본학이 웬만한 서구의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실정과는 구별된다 하겠다. 해외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을 더욱더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학 연구자들의 모임이 더욱더 빈번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이를 통해 한국학 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한국학은 아직 중국학이나 일본학처럼 지역학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학 서적이 무상으로 배포되고 한국문필가의 초청 강연과 판소리, 탈춤을 위시한 여러 문화 공연이 줄줄이 뒤를 잇고 있다. 한국문화교류재단이 지원하여 시애틀에서 미술관이 개원되고 주식회사 선경의 지원으로 시카고 대학에서는 3명의 한국학 교수직을 늘렸다. 미국을 위시한 영어권에 있어서 한국학은 1950년대-1960년 대의 미국학이 그러했듯이 바야흐로 황금기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IV. 결론-21세기의 한국(문)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집계된 통계 분석에 의지한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용성을 상실하게 된다. 특별히 영어권에 있어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또는 나라가 미국, 영국을 위시하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홍콩, 심지어는 한국을 포함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뭉고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 수집의 한계성과 분석의 타당성에 대해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한다. 필자는 몽고인이나 일본인 또는 한국인이 영어로 쓴 연구서지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나, 프랑스인이나 호주인이 집필한 연구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어권이나 서양어권에서 출판된 것이라면 서양문화권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서지목록에 포함시켰다.

한 나라의 문화의 척도는 그것을 산출한 문학에서 귀결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기도 하다. 우리는 영국하면 셰익스피어를 떠올리고, 철학하면 흐립이나 독일을 떠올린다. 그렇다면 한국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아무리 활자를 발명하고 종이를 일찍이 발명하여 선진문화 5000년을 이루어 내었다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한국이 그것을 토대로 위대한 문화, 문학을 산출해 내었다고 인정을 받을 때 한국의 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효, 지눌, 퇴계, 다산을 위시한 한국 철학에 대한 국내외 학자들의 번역 및 연구 또한 시급하지만, 한 나라의 문화나 사상을 배울 때 우리가 먼저 우선 그 나라의 간단한 소설이나 시를 읽는 것이 상례라면, 고전문학을 포함하는 한국의 문호에 대한 번역, 연구 작업도 절실한 실정이다. 일본문학이나 중국문학에 대한 미국인들의 연구는 일찍이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적 수준에 도달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문학 번역 및 연구 작업이 현대소설이나 현대시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번역 및 연구에 있어서의 시대와 장르의 다변화 또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학이 문화의 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한국학을 후원하는 여러 집단이나 기관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혹 한국에 과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작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

다. 미국문학, 그리고 미국학 전공자로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다면, 미국문학은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문학 작품을 주로 연구하고 대중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미국 내의 대학에서 외면당하고 있었다. 다만 1,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부의 축적으로 발아된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소위 신화상징학파 Myth and Symbol School 미국 학의 융성과 더불어 많은 미국의 사상가와 문필가가 미국内外에서 연구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의 시인과 소설가들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연구되게 되었다. 미국인으로 노벨상을 처음 받은 루이스 Sinclair Lewis의 몇몇 작품들은 이제 거의 읽혀지지 않는다. 미국의 부가 그들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것이다. 한국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제가 우선인 이 역설적인 상황을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불완전하지만 아직까지 조사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한국문학의 미국에서의 수용과 현지에서의 연구 현황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가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작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인용문헌

- 봉준수·권석우.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현황 - 통계를 ‘읽는’ 몇 가지 시각」.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엄순천. 「러시아의 한국문학 연구현황 및 분석」. 『동유럽 빌칸학회』 제6권1호 (2004).
- 오정숙. 「프랑스에서의 한국문학의 수용과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전망」. 『프랑스학 연구』 제 29권 (2004).
- 유재신. 「한국학의 세계화」, 『사학연구』 제53호 (1997).
- 유종호 외 28인. 『한국 현대 문학 50년』. 서울: 민음사, 1995.
- 윤충남 편. 『하바드 한국학의 요람』. 서울: 을유문화사, 2001.
- 이성무. 「해외한국학의 진흥방안 I」, 『정신문화연구』 제62호 (1996).
- \_\_\_\_\_. 「해외한국학의 진흥방안 II」, 『정신문화연구』 제63호, 1996.

- 이혜경.『한국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구미에서의 한국학을 중심으로』, 서울: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4.
- 인문사회연구회 편,『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학술정책』,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2.
- \_\_\_\_\_.『국내외 인문학 지원체제 비교 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2.
- Mostow, Joshua, ed. *The Columbia Companion to Modern East Asian Literature*. NY: Columbia UP, 2003.
- Nahm, Andrew C., "Current Studies of Korean Studies in North America - Problems and Prospects." *Papers of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1979. Seoul: Academy of Korean Studies, 173-195 (1979). 「북미주에 있어서 한국연구의 현황-문제와 전망」.『세계 속의 한국학 그 현황과 전망』,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 모음집.
- MacDonald, Donald S. "The Status of Korea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62-191.『해외한국학 연구 현황』, 수원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편. 수원: 수원대학교 출판부, 1990.
-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 comp. Frank Hoffman with Matthew J. Shristensen & Kirk W. Larsen.
- Hawaii Korean Studies Bibliography*. comp. Kenneth Robinson.
-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Abstract]

**The Translation and Study of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Suk Wu Kwon  
(University of Seoul)

Up to January 2003, the amount of English translated works of Korean Literature

are 399, among which 170 are translated abroad, 189, in Korea, and 40, abroad as well as in Korea at the same time. Like other language speaking countries, the 1980s and the 1990s are peak not only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but also for its scholarly attention. The statistic analysis of information, accumulated in various databases such as *The Harvard Korean Studies Bibliography*, *Hawaii Korean Studies Bibliography*, and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shows that up to February 2004, 33 books, 16 dissertations and one thesis, 200 articles, and 84 reviews are wholly devoted to the study of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However, why certain works of poets like Kim Sowol, Han Youngun, So Chungju, and novelists like Hwang Sunwon, Han Moosook, Kim Dongri are mostly translat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remain to be analysed in their socio-political details in breadth and depth. Likewise, why the works of So Chungju, Yi Kwangsoo, Kim Manjoong, Han Youngun, Kim Sowol, Chung Jiyoung are mostly taught and studied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are open to further scholarly discussion and debate.

접수일 : 2005년 4월 27일

심사기간 : 2005년 4월 29일~5월 20일

재심사 : 2005년 5월 30일

게재결정 : 2005년 6월 4일(편집위원회의)